

#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에 나타난 학제성 연구

## A Study of Interdisciplinarity i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정 연 경(Yeon-Kyoung Chung)\*

### 목 차

- |                      |                               |
|----------------------|-------------------------------|
| 1. 서 론               | 2.2 학제성의 측정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기록관리학의 학제성 분석              |
| 1.2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제한점 | 3.1 자료유형별 인용 현황               |
| 1.3 선행연구             | 3.2 브릴로엔 인덱스(Brillouin Index) |
| 2. 학제성의 의의           | 4. 종합 분석                      |
| 2.1 학제성의 개념          | 5.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과 그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학술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선정하였고, 조사대상 기간은 2001년(창간호)부터 2011년(제11권 제2호)으로 하였다. 총 195편의 논문과 여기에 실린 참고문헌 4,869건 중에서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 규격/표준/지침, 법령/시행령/규정에 해당하는 2,997건의 직접 인용 분석을 수행하고 브릴로엔 인덱스(Brillouin Index) 지수를 중심으로 지난 11년간 국내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밝혔다.

주제어: 기록관리학, 학제성,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직접 인용, 브릴로엔 인덱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erdisciplinary changes in the field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disciplinary attributes of citing and cited references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2001-2011. One hundred and ninty five research articles and two thousands nine hundreds ninty seven cited references were analyzed to find the degree of interdisciplinarity by using direct citation and Brillouin index. Finally, the interdisciplinary changes of source literature and cited references in Korean archival science during the period were suggested.

Keywords: archival science, interdisciplinar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irect citation, Brillouin index

\*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교수(ykchung@ewha.ac.kr)

■ 접수일: 2012년 7월 13일    ■ 최초심사일: 2012년 7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4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복잡한 연구 문제의 해결과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학제적인 연구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정부와 연구지원 기관은 학제성의 확장을 1990년대부터 정책적인 목적(Levitt, Thelwall, & Oppenheim 2011)으로 제시하였고 학제적 문헌의 증가(Braun & Schubert 2003)와 학제적 연구소의 양적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Ortega & Antell 2006).

이러한 학제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각 학문분야마다 학제성이 얼마나 되고 학제성이 미치는 영향과 학문의 발전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학제적 구조에 관한 연구가 학문의 발전, 흐름, 경향, 예측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며(Leydesdorff & Schank 2008; Szostak 2008) 이러한 학제성 연구는 학문 분야의 정보 자원, 연구 계획, 연구 지원 등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정은경, 정연경, 이정연 2009).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제적 성격을 많이 띠 수 밖에 없는 학문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록관리학이다. 기록관리학은 보조적인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 관점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학문으로, 이러한 특성은 기록 매체의 복잡성, 기록의 생산 맥락, 기록의 잠재적 이용가능성,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역할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에 관해 Gilliland-Swetland(1992)는 기록관리학의 지적 구조를 문헌정보학(21.2%), 기록(46%), 레코드관리

(0.84%), 컴퓨팅(6.85%), 역사학(4.33%), 기타(20.84%)의 6개 영역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Kim과 Lee(2008)는 기록관리학이 더 많은 학제적 세부 분야를 포함해 가고 있으며 연구 분야도 복합적인 주제 영역으로 동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은 교육지침서에도 반영이 되어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SAA) (2012)의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GPAS)에서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을 핵심 영역과 보충 영역으로 나누고 보충 영역에서 학제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나 연구는 주로 외국의 문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분석하고 기록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실제로 학제적인 특성을 띠며 지난 10년 넘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선정하여 2001년 창간호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게재된 모든 연구 논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총 195편의 논문과 여기에 피인용된 총 4,769개의 참고문헌에 실린 자료의 유형 중 7% 이상을 차지한 학술지(33.17%)와 단행본(16.46%), 웹문서(10.04%), 보고서(9.96%), 규격/표준/지침(8.24%), 법령/시행령/규정(7.82%) 중에서 분류기호의 파악이 가능한 학술지, 단행본, 규격/표준/지침, 법

령/시행령/규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류기호의 파악이 불가능한 단행본 14건과 학술지 18건, 규격/표준/지침 91건을 제외한 단행본 758건과 학술지 1,564건, 규격/표준/지침 302건, 법령/시행령/규정 373건, 총 2,997건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원문헌과 참고문헌은 연구자가 지난 11년 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일이 조사한 후,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분석 요소인 자료유형, 저자명, 표제명, 소속기관, 연구자 신분, 연구형태, 발행년, 표제명, 분류기호로 항목을 만들어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각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으로 실린 학술지와 단행본, 규격, 법령에 해당하는 듀이십진분류기호(이하 DDC)의 류와 강을 분석하여 학제성을 자료의 유형별, 연도별로 먼저 비교하였고 학제성의 변화와 추세를 인식하기 위해 매년 기록관리학 안에서의 학제성 지수를 측정하는데 브릴로엔 인덱스(Brillouin's Index)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피인용 문헌에 해당하는 DDC는 서양 자료의 경우, Library of Congress를 우선적으로 검색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British Library 순으로 탐색하였다. 미의회도서관 분류기호만이 존재하는 자료의 경우, Classification Web에서 제공하는 Bibliographic relationship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다 건수를 차지한 DDC 분류기호를 채택하였다. 동양 자료의 경우,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먼저 검색해보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디라이브러리를 검색하였다. 한국십진분류기호(이하 KDC)만 존재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동일한 핵심표제어로 자료를 찾아 DDC 분류기호를 기재하였

다. 법령/시행령/규정은 법학(340)에 일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규격/표준/지침은 연도만 다르고 핵심표제어가 거의 유사한 경우에만 분류기호를 부여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술지 분류기호의 주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학술지 논문의 주제에 대한 DDC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재된 학술지에 부여된 DDC를 학제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DDC로 학문 분야를 분석한 이유는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분류표이고 서양과 동양 모두 분류기호의 파악이 다른 분류표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기록관리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된 학문 분야는 무엇인가? 둘째,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은 지난 11년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셋째,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에 대한 종합 분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로는 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되는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학술 논문만을 바탕으로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학연구』를 분석하는 경우,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점이 나올 수 있다. 또한 DDC의 류와 강의 구조로 피인용 문헌에 대한 학제성 분석 기준을 삼아서 DDC가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1.3 선행연구

기록관리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중 부분

적으로 연구 주제나 학제성을 다룬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희정(2005)은 저자 동시인용분석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국내와 미국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중심으로 지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김희정(2006)은 다시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연구 영역에 관한 12건의 연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1980년대는 기록물과 기록관 중심의 연구, 1990년대는 전자기록물과 정보시스템 중심의 연구, 2000년대는 디지털 환경과 정보기술, 인접 학문과의 결합이 강조되는 학제적 연구로 시대별 연구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재운, 문주영과 김희정(2007)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국내 문헌정보학 영역의 대표 학술지 5종에 선정된 기록관리학 논문 145건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의 지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기록관리학 영역의 핵심 주제 영역은 전자기록물관리, 디지털 보존,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기록물 기술과 목록, 기록관리교육이었으며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 중심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기록관리 전문 학술지 4종에 실린 논문 399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규환, 장보성과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전문학술

지 3종에 실린 연구논문 334개를 선정하여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키워드의 역할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영역을 분석하였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 3종에 실린 374편의 논문으로부터 주제 영역과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의 소속 및 전공을 추출하여 연구배경 및 연구자 특성에 따른 주제 영역의 분포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정연경(2011)은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와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자료 유형, 언어, 발행국, 연구형태, 수명, 최다 피인용 자료를 조사하고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에 관한 분석 결과 비교와 기록관리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의 연구로 Gilliland-Swetland(1992)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6종을 대상으로 136개 논문을 인용 분석하여 기록관리학의 영역을 문헌정보학, 기록관 및 기록관리, 컴퓨터, 역사,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Couture와 Ducharme(2005)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출간된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기록관리학의 주요 연구 영역으로 기록관리학의 목적, 기록관과 사회, 기록관과 기록관리학의 역사, 기록물 기능,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 경영, 기술, 매체와 기록관 유형, 기록관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Kim과 Lee(2008)는 기록관리학의 지적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관리학 분야의 논문 432편을 43개의 클러스터로 분석하고 7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누었다. 7개의 주제 영역은 다시 3개의 대표 영역으로 합쳐졌는데, 디지털 도서관, 기록물, 레코드 정보

경영으로 기록관리학 영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보았다.

White와 Gilliland(2010)는 기록관리학의 교육과 연구, 실무에 있어서 학문적인 논의와 방법론이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구 과제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기록관리학 교육과 연구가 기록관리 전문직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헌정보학이나 정보학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학제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학제적 성격을 갖는 특정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민기은과 정영미(2006)는 사회과학 정보 게이트웨이인 SOSIG의 Grapevine 자료를 통해 사회과학 내 학문분야간 학제성을 측정하였고 관련 학자들의 홈페이지 동시 링크와 미국 상위 관련 학과 홈페이지의 동시 링크를 분석하였다.

이재윤과 정주희(2006)는 국내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자 소속 정보와 논문의 표제어 분석을 통해 학제적 구조를 파악하였는데, 국내 인지과학 분야에서 대표되는 학문 영역은 컴퓨터 과학, 심리학, 언어학, 인지과학, 철학, 교육학, 의학, 경영학으로 드러났다.

정호연과 정영미(2007)는 학술지 인용 데이터와 웹 링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학제적 구조를 파악하고 각 학문 분야간 학제성을 비교하였다.

이재윤(2008)은 국내 연구자의 학술지 논문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학문분야간 학술지 공유도를 산출하고 이로부터 국내 학문분야의 구조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정은경, 정연경, 이정연(2009)은 한국학술진

흥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내의 연구자 소속 정보와 연구 영역으로 대분류, 중분류 영역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김대현과 강이화(2010)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흐름인 학제성 개념과 유형을 문헌 분석을 통해 찾아내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연구 과제를 가지고 관점을 종합하거나 통합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학제성을 개념화하였고 학제성의 유형은 다학문적 학제성, 간학문적 학제성, 탈학문적 학제성, 완전학제성으로 구별하였다.

김상구와 이원일(2010)은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 소속, 지역성, 참여형태, 학제성, 연구방법, 연구영역 등으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정은경(2011)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디지털 도서관 주제의 논문 1,394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저자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문헌정보학, 컴퓨터학, 공학 분야가 공동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핵심디지털도서관 영역, 자연과학영역, 의학관련 영역, 생물학 및 의학영역으로 이론 중심의 연구와 구축과 운영과 관련된 실무 영역이 함께 발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학제성 관련 연구를 보면, Iacovico(2004)는 기록관리학에서의 다각적 학제성 연구를 레코드 관리와 윤리학, 법학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녀는 기록관리학에서 다면적인 학제성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어 다른 학문 경계를 넘고 많은 연구 패러다임과 개념적 이해가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Chen과 Huang(2007)은 저자의 소속 학과의

순위가 학술지의 가치 평가 및 학제성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재정학 분야에 적용하였고 Cronin과 Meho(2008a)는 동일한 방법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적용하여 소속 학과에 대한 분석이 학제성 연구에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속해서 Cronin과 Meho(2008b)는 정보학 분야 275개 학술지와 학술대회논집에서 더 넓은 주제로의 인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컴퓨터학, 공학, 경영학이라고 하였다.

Chua와 Yang(2008)은 1988-1997년과 1998-2007년에 발행한 JASIST(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논문의 학문 분야를 비교하였는데, 전에는 도서관학이나 정보학 소속의 교수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에는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기술, 경영, 인문학에 소속된 저자들로 이루어져서 분야의 범주가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Porter와 Rafols(2009)는 Web of Science(WoS)의 6개 주제 분야인 바이오 기술과 응용 미생물학, 공학, 전기 & 전자, 수학, 의학, 신경과학, 물리학에서 학제성이 1975년에 비해 2005년에는 50% 증가하였음을 알아내었다. 유사하게 Gingras와 Lariviere(2010)와 Lariviere와 Gingras(2010)는 다른 주제의 학술지를 참고 문헌에 인용한 정도를 해당 학문 분야의 학제성으로 보았다.

Obermeier와 Brauckmann(2010)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Web of Science에 수록된 공동 저작을 분석하여 University of College Dublin의 공동 연구와 학제적 연구 특성을 조사하였다.

Prebor(2010)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박사 학위 논문의 학제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정보 이용에 집중하면서도 경영학, 컴퓨터학,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정보기술, 정보산업, 정보경영과 같은 학제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White와 Gilliland(2010)는 기록관리학이 전문적인 분야로 옮겨가면서 학문 분야의 토론과 방법론적 접근이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정치학적, 교육,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확장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Levitt, Thelwall, Oppenheim(2011)은 1980년대 이후 학제성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의 논문 주제를 Percentage of Cross-disciplinary Citing Document(PCDC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hang과 Huang(2012)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문헌정보학의 학제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3가지 계량서지학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간행물을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였으며 문헌정보학 논문의 공동저자는 문헌정보학 관련 기관에 소속되었다. 문헌정보학 안에서의 학제성은 공동저자의 경우 특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서 기록관리학의 연구 주제나 관련 학문 분야를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국외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의 대표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그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바탕으로 학제성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제성이 높은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학제성 지수의 측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 2. 학제성의 의의

### 2.1 학제성의 개념

현대 사회 구조가 복잡화되고 산업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일 학문의 지식으로 해결이 어렵게 되면서 기존 학문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이나 연구 방법을 끌어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문의 융합이나 통섭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그 바탕이 되는 학제성은 학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다른 영역과 관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응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제성을 통해 전체 학문의 활동과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은경, 정연경, 이정연(2009)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은 복잡성이지만,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통합되는 경우를 학제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대현과 강이화(2010)는 학제성을 기존의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탐구할 만한 주제를 갖고 여러 학문의 관점을 종합하고 나아가 학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과 연구 과정이라고 하였다.

### 2.2 학제성의 측정

학제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학제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학술 논문의 공동 저자 분석(연구자 집단의 협력 형태와 연구자 소속 정보 분석), 학술 잡지의 주제 중복성 분석(학술 데이터베이스 내 학술지에 부여된 주제 범주),

학술지 논문에 부여된 주제어 분석, 문헌 간의 인용, 동시인용 분석, 저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정보가 실린 웹 링크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Pierce(1999)는 학제적인 정보는 세 가지 유형, 즉 다른 학문 분야로부터의 참고문헌의 인용, 다른 분야로부터의 연구자가 쓴 공동 저자의 논문, 다른 학문분야 안에서의 저작 간행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달은 하나의 특정한 학문분야의 학제성 정도를 표현하고 간행물에서 공동 저자와 참고문헌의 학문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결정된다고 하였다.

Qin, Lancaster, Allen(1997)은 연구자 협력 연구 형태를 분석하여 학제성 규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학제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제성은 학문 분야간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Schunn, Crowley, Okada(1998)는 학과 소속을 연구방법론, 인용 정보와 함께 분석하여 인지과학 분야의 학제성을 분석하였고 Chen과 Huang(2007), Chua와 Yang(2008)과 Cronin과 Miho(2008a)는 소속 학과 정보 분석을 통한 학제성이 유용함을 밝혔다.

그러나 Levitt, Thelwall, Oppenheim(2011)은 저자의 소속기관을 바탕으로 하는 학제성 분석의 제한점으로, 한 학과에 소속된 저자의 모든 논문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만 분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 출현 용어의 분석은 연구 영역에 나타난 동시 출현 용어를 분석하여 학제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Tijssen(1992)은 에너지 연구 영역의 학제성을 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용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학제성을 분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계량정보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Porter

〈표 1〉 학제성 분석에서 브릴로엔 인덱스의 적용 방법

산출 공식	구분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	기록관리학의 학제성	
			인용 문헌	
$\frac{\log N! - \sum(\log n_i!)}{N}$	$N$	해당 표본의 전체 개체 수	전체 참고문헌 수	
	$n_i$	개별 종의 개체 수	개별 학문에 속한 참고문헌의 수	

등(1985)은 해당 연구 분야 이외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를 근거로 학제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Levitt, Thelwall과 Oppenheim(2011)은 피 인용된 논문의 주제 범주를 사용하여 학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동일한 커다란 주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논문의 주제를 표현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였다.

Chang과 Huang(2012)은 직접 인용이 참고 문헌의 학문적 분포를 인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원래 학문 분야와 그 영향력의 정보가 판명되고 정보 흐름의 관점에서 학제적 관계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 하나의 학문분야에 동일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논문과의 서지 결합 연결(bibliographic coupling link)이 없는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Huang과 Chang(2011)과 Chang과 Haung(2012)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발간된 5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정보학의 학제성을 측정하는데 브릴로엔 인덱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정 분야의 학회지를 선정하여 해당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중심으로 공저자와 인용 문헌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작위가 아닌 임의 표집과 같다고 간주하고 이를 인용 분석에서의 학제성 측정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브릴로엔 인덱스를 적용하여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산출하였다. 학제성 지수를 산출하는 공식과 이를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에 적용시키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N$ 와  $n_i$ 은 분석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용 문헌의 경우  $N$ 은 전체 참고문헌 수,  $n_i$ 은 개별 학문에 속한 참고문헌의 수가 된다. 이를 연도별 학제성 지수로 적용하면,  $N$ 은 특정 연도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수,  $n_i$ 은 각 학문에 속한 참고문헌의 수를 뜻하게 된다. 이 공식에 따르면, 학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3개가 있는데, 첫째 특정 시기에 인용된 전체 문헌의 수, 둘째 특정 시기에 인용된 주제의 개수, 셋째 주제별로 인용된 문헌의 수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문헌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의 전체적인 주제 분포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이 때 지수 값이 클수록 학제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기록관리학의 학제성 분석

#### 3.1 자료유형별 인용 현황

##### 3.1.1 개요

195개 논문에서 인용된 전체 참고문헌 총 4,769건 중 인용이 많이 된 상위 6개 자료의 유형은 학

술지(33.17%), 단행본(16.46%), 웹문서(10.04%), 보고서(9.96%), 규격/표준/지침(8.24%), 법령/시행령/규정(7.82%) 순이었다. 그래서 7%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외 국가도서관 목록을 통해 분류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지, 단행본, 규격/표준/지침, 법령/시행령/규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분석 대상이 된 인용 문헌 수는 학술지 349종, 1,564건(52.2%), 단행본 503종, 758건(25.3%), 법령/시행령/규정 301종, 373건(12.4%), 규격/표준/지침 272종(10.1%), 302건(10.2%), 총 1,425종, 2,997건으로 이 중에서 단행본 14종(14

건), 학술지 15종(18건), 규격/표준/지침 88종(91건)은 분류기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가 없는 자료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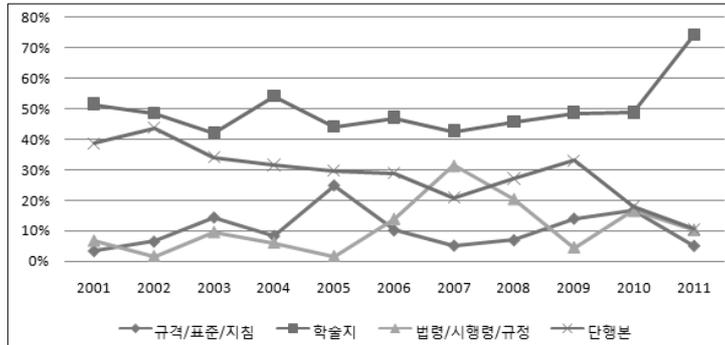
<표 3>과 <그림 1>을 보면, 2008년 이후부터 인용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단행본의 인용률이 떨어지는 반면, 학술지 인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법령/시행령/규정은 특정한 시기(2007년, 2008년)에 인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과 2009년의 법개정은 법령의 인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많은 연구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표 2> 참고문헌의 자료유형

자료유형	건수	비율	자료유형	건수	비율		
고문서	81	1.70%	서신/면담	5	0.10%		
공문서	29	0.61%	신문기사	35	0.73%		
규격/표준/지침	393	8.24%	웹문서	479	10.04%		
기타	21	0.44%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인쇄	233	4.89%	
단행본	번역서	111		2.33%	전자	26	0.55%
	인쇄	605		12.69%	소계	259	5.43%
	전자	1	0.02%	학술지	인쇄	1,565	32.82%
	챗터	68	1.43%		전자	17	0.36%
	소계	785	16.46%		소계	1,582	33.17%
법령/시행령/규정	373	7.82%	학위논문	252	5.28%		
보고서	인쇄	364	7.63%	합계	4,769	100.00%	
	전자	111	2.33%				
	소계	475	9.96%				

<표 3> 자료 유형별, 연도별 인용 수

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규격/표준/지침	6	8	30	15	47	19	16	23	50	59	29	302
학술지	92	60	88	98	83	88	133	152	174	171	425	1,564
법령/시행령/규정	12	2	20	11	3	26	98	68	16	58	59	373
단행본	69	54	71	57	56	54	65	90	118	63	61	758
합계	179	124	209	181	189	187	312	333	358	351	574	2,997



〈그림 1〉 자료 유형별, 연도별 인용 비율

3.1.2 피인용 문헌의 주제별 현황(연도별)

〈표 4〉와 같이 DDC 류 수준에서 인용 문헌의 주제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000(총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사회과학), 600(기술과학), 900(역사/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주제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000 총류는 시기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인용 수가 많았으며, 이외의 주제 분야는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인용 빈도가 많은 주제 분야는 300 사회과학이었으

며, 다음으로 600 기술과학과 900 역사 및 지리학, 700 예술이었다. 그 외 분야의 인용은 매년 전혀 인용이 안 되었거나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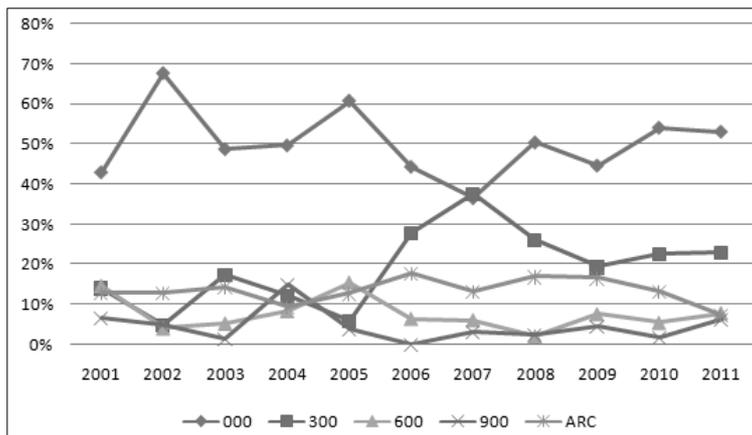
DDC의 10개 대분류에서 인용이 높은 상위 5개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10년간 인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300)은 2003년과 2007년이 전년도에 비해 인용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학과 행정학 분야에 대한 인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표 4〉 주제별 분포

주제	규격/표준/지침	학술지	법령/시행령/규정	단행본	빈도(순위)
000(총류)	201	1,239	-	431	1,875(1)
100(철학)	-	9	-	11	20(6)
200(종교)	-	4	-	11	15(8)
300(사회과학)	57	103	373	103	636(2)
400(언어학)	-	6	-	3	9(10)
500(자연과학)	-	10	-	7	17(7)
600(기술과학)	33	99	-	83	215(3)
700(예술)	3	23	-	42	68(5)
800(문학)	-	7	-	4	11(9)
900(역사/지리)	4	64	-	63	131(4)
합계	302	1,564	373	758	2,997

〈표 5〉 연도별 주제 분포

주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000	100	100	132	107	139	116	155	224	219	236	347	1,875
100	3		1			4	1	2	2	1	6	20
200	2		2	8		2					1	15
300	25	6	36	22	11	52	117	87	69	79	132	636
400	1	1					4		1		2	9
500	3	3		2	3				2	2	2	17
600	26	5	11	15	29	12	19	7	27	19	45	215
700	4	3	24			1		5	21	8	2	68
800	3						6		1		1	11
900	12	6	3	27	7		10	8	16	6	36	131
합계	179	124	209	181	189	187	312	333	358	351	574	2,997



〈그림 2〉 연도별 주제 분포(류) 비율

3.1.3 피인용 문헌의 주제별 현황(자료 유형별)

1) 대분류(류) 기준

〈표 6〉과 같이 자료유형별 주제 분포를 보면, 법령/시행령/규정을 제외한 3개 자료 유형에 공통적으로 000(총류)의 인용률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300(사회과학) > 600(기술과학) > 900(역사 및 지리) 순으로 나타났다.

규격/표준/지침은 000(총류), 300(사회과학), 600(기술과학), 700(예술), 900(역사 및 지리), 총 5개 주제 분야가 인용되었으며, 2005년, 2009

년, 2010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인용되었다(〈표 7〉 참조).

학술지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인용률이 높아졌으며, 2011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류 기준으로 전 주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인용되었으며, 총류(000)은 2008년과 2011년, 사회과학(300)은 2006년과 2011년, 기술과학(600)은 2007년, 2009년, 2011년, 역사 및 지리(900) 분야의 인용은 2004년, 2011년이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6〉 자료유형 및 주제별 분포

주제	규격/표준/지침		학술지		법령/시행령/규정		단행본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000	205	67.9	1239	79.2	-	-	431	56.8	1875	62.5
100	-	-	9	0.6	-	-	11	1.5	20	0.7
200	-	-	4	0.3	-	-	11	1.5	15	0.5
300	57	18.9	103	6.6	373	100.0	103	13.6	636	21.2
400	-	-	6	0.4	-	-	3	0.4	9	0.3
500	-	-	10	0.6	-	-	7	0.9	17	0.6
600	33	10.9	99	6.3	-	-	83	10.9	215	7.2
700	3	1.0	23	1.5	-	-	42	5.5	68	2.3
800	-	-	7	0.4	-	-	4	0.5	11	0.4
900	4	1.3	64	4.1	-	-	63	8.3	131	4.4
합계	302	100.0	1,564	100.0	373	100.0	758	100.0	2,997	100.0

〈표 7〉 연도 및 주제별 분포: 규격/표준/지침

주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000	5	8	17	6	30	7	11	19	36	46	20	205
300	-	-	9	8	1	8	5	2	9	7	8	57
600	1	-	2	1	16	4	-	1	2	5	1	33
700	-	-	2	-	-	-	-	-	1	-	-	3
900	-	-	-	-	-	-	-	1	2	1	-	4
합계	6	8	30	15	47	19	16	23	50	59	29	302

〈표 8〉 연도 및 주제별 분포: 학술지

주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000	67	53	80	77	78	73	94	134	124	150	309	1,239
100	1	-	-	-	-	-	1	2	2	1	2	9
200	-	-	1	3	-	-	-	-	-	-	-	4
300	5	1	2	1	1	12	10	8	11	8	44	103
400	1	-	-	-	-	-	3	-	1	-	1	6
500	2	2	-	1	1	-	-	-	2	1	1	10
600	11	-	1	2	2	2	15	3	17	8	38	99
700	3	-	4	-	-	1	-	1	9	3	2	23
800	-	-	-	-	-	-	5	-	1	-	1	7
900	2	4	-	14	1	-	5	4	7	-	27	64
합계	92	60	88	98	83	88	133	152	174	171	425	1,564

법령/시행령/규정은 2007년도에 인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6년 기록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연구와 인용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연도 및 주제별 분포: 법령/시행령/규정

주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00	12	2	20	11	3	26	98	68	16	58	59	373
합계	12	2	20	11	3	26	98	68	16	58	59	373

단행본의 경우, 2008, 2009년도에 인용률이 높았으며,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전 주제 분야가 인용되었고, 총류(000)를 제외한 사회과학(300), 기술과학(600), 역사 및 지리(900)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2) 중분류(강) 기준

4개 자료 유형 중에서 법령/시행령/규정은 34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3개 유형을 중심으로 강 수준에서 주제 분포를 분석하였다. DDC에서 기록관리학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는 025.1714로 문헌정보학(020) 아래 세목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기록관리학(025.1714)은 문헌정보학(020)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해당하는 분류기호(025.1714)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학 분야를 제외하고 규격/표준/지침 13

개, 학술지 48개, 단행본은 51개 주제 영역에서 인용이 되었으며 인용률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주제 분야를 자료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자료유형과 상관없이 020(문헌정보학)이 가장 높았고, 2순위부터는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기록물 정리, 기술, 메타데이터, 검색 등의 주제가 문헌정보학 아래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헌정보학의 인용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규격/표준/지침은 020(문헌정보학), 025.1714(기록관리학), 350(행정학), 650(경영학) 340(법학) 순이었고, 학술지는 020(문헌정보학), 010(서지학), 025.1714(기록관리학), 650(경영학), 000(컴퓨터학/정보) 순이었고, 단행본은 020(문헌정보학), 025.1714(기록관리학), 650(경영학), 950(아시아역사), 350(행정학) 순이었다(〈표 11〉 참조).

〈표 10〉 연도 및 주제별 분포: 단행본

주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000	28	39	35	24	31	36	50	71	59	40	18	431
100	2		1			4					4	11
200	2		1	5		2					1	11
300	8	3	5	2	6	6	4	9	33	6	21	103
400		1					1				1	3
500	1	1		1	2					1	1	7
600	14	5	8	12	11	6	4	3	8	6	6	83
700	1	3	18					4	11	5		42
800	3						1					4
900	10	2	3	13	6		5	3	7	5	9	63
합계	69	54	71	57	56	54	65	90	118	63	61	758

〈표 11〉 자료유형별 상위 10개 주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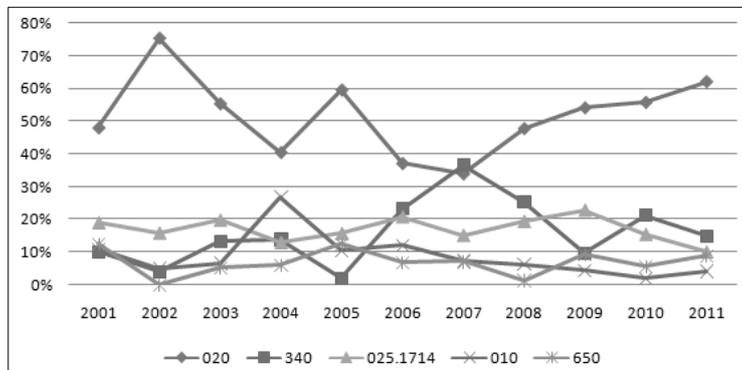
순위	전체		규격/표준/지침		학술지		단행본	
	주제	건수	주제	건수	주제	건수	주제	건수
1	020	1,215	020	132	020	851	020	232
2	340	416	025.1714	66	010	162	025.1714	164
3	025.1714	387	350	39	025.1714	157	650	54
4	010	170	650	26	650	82	950	37
5	650	162	340	15	000	33	350	34
6	350	91	000	7	950	32	670	18
7	950	71	620	5	300	28	320	18
8	000	52	900	2	040	23	770	17
9	300	45	370	2	350	18	300	16
10	320	32	950	2	900	15	060	15

자료유형별 인용률 상위 5개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연도별 인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020(문헌정보학)은 2007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인용률이 높아졌으며, 340(법학)은 2006년과 2007년에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록관리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른 주제들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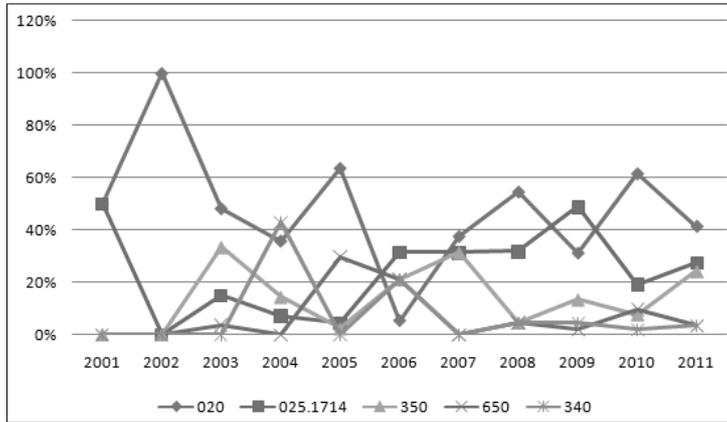
규격/표준/지침은 025.1714(기록관리학) 분야의 인용률이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350(행정학)은 2003년, 2007년,

2011년에 인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학술지의 경우, 010(서지학) 분야는 2004년에 인용률이 매우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였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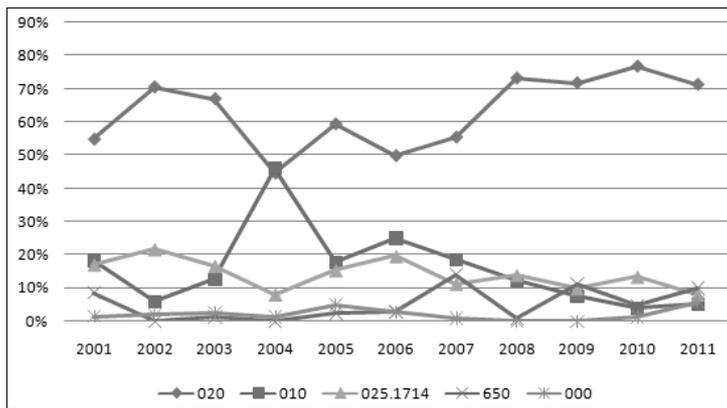
단행본은 2007년도 이후부터 020(문헌정보학)과 025.1714(기록관리학)의 인용률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650(경영학) 분야는 꾸준히 인용되는 반면, 950(아시아역사)과 350(행정학)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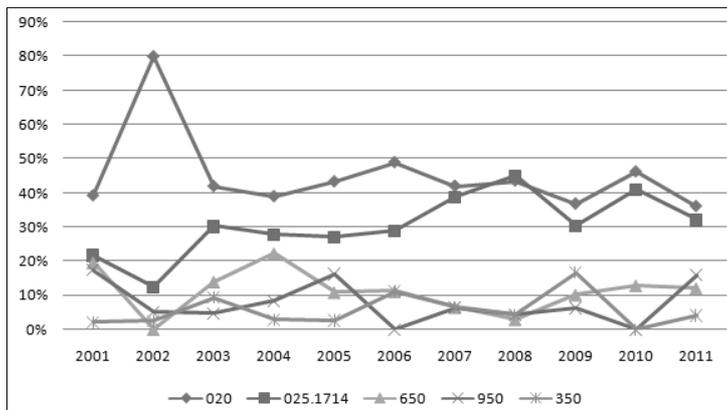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주제분포(강) 비율



〈그림 4〉 연도별 주제분포(강) 비율: 규격/표준/지침



〈그림 5〉 연도별 주제분포(강) 비율: 학술지



〈그림 6〉 연도별 주제분포(강) 비율: 단행본

### 3.2 브릴로엔 인덱스(Brillouin Index)

인용 문헌을 대상으로 학제성 지수를 알려주는 브릴로엔 인덱스를 연도별로 산출한 결과, 2001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 2009년, 2011년에도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관리학이 시작될 시점부터 학문의 특성상 학제성이 있었으며 오히려 시작할 때가 그 어느 시점보다 다양한 학문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학제성은 매년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제성 지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단행본의 학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규격/표준/지침은 가장 낮았다. 학술지와 단행본 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04년에는 학술지가 단행본보다 지수가 낮았으며, 2007년에는 높게 나타났다(<표 12>, <그림 7> 참조).

<표 12> 학제성 지수: 인용문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술지	0.77	0.52	0.53	0.68	0.53	0.69	0.75	0.56	0.73	0.52	0.77
단행본	0.88	0.58	0.90	0.82	0.85	0.65	0.56	0.72	0.91	0.81	1.03
학술지+단행본	0.93	0.62	0.81	0.87	0.75	0.76	0.76	0.70	0.91	0.69	0.87
규격/표준/지침	0.35	0.00	0.52	0.46	0.41	0.53	0.39	0.44	0.58	0.56	0.48
전체	0.98	0.61	0.87	0.92	0.76	0.80	0.78	0.75	0.93	0.75	0.97



<그림 7> Brillouin Index: 자료 유형

## 4. 종합 분석

기록관리학 대표 학술지에 실린 195편과 피

인용된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학제성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5개 논문에서 인용된 전체 참고문헌 총 4,769건 중 인

용이 많이 된 상위 6개 자료의 유형은 학술지(33.17%), 단행본(16.46%), 웹문서(10.04%), 보고서(9.96%), 규격/표준/지침(8.24%), 법령/시행령/규정(7.82%) 순이었다.

둘째, 자료 유형별로 7% 이상 차지한 피인용 문헌 총 1,425종, 2,997건을 바탕으로 2008년 이후부터 인용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단행본의 인용률이 떨어지는 반면, 학술지 인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법령/시행령/규정은 특정한 시기(2007년, 2008년)에 인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관리학 교육과 연구, 학문의 성숙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관련 주제의 연구가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깊어지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법령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DDC 류 수준에서 인용 문헌의 주제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000(총류)가 연도와 상관없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사회과학), 600(기술과학), 900(역사/지리) 순으로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회과학(300)은 2007년에 인용률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학과 행정학 분야에 대한 인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DDC 강 수준에서는 문헌정보학과 법학, 기록관리학 순으로 인용이 많이 되었다. 기록관리학 분야를 제외하면, 규격/표준/지침 13개, 학술지 48개, 단행본은 51개 DDC 강 수준의 학문 영역에서 인용이 되었으며 인용률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주제 분야를 자료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자료유형과 상관없이 020(문헌정보학)이 가장 높았고, 2순위부터는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규격/표준/지침은 025.1714(기록관리학) 분야의 인용률이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350(행정학)은 2003년, 2007년, 2011년에 인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술지의 경우, 010(서지학) 분야는 2004년에 인용률이 매우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단행본은 2007년도 이후부터 020(문헌정보학)과 025.1714(기록관리학)의 인용률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650(경영학) 분야는 꾸준히 인용되는 반면, 950(아시아역사)과 350(행정학)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학제성 지수를 알려주는 브릴로엔 인덱스를 연도별로 산출한 결과, 2001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 2009년, 2011년에도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 수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관리학이 시작될 시점부터 학문의 특성상 학제성이 있었으며 오히려 시작할 때가 그 어느 시점보다 다양한 학문의 관심을 끌었고 일정 수준의 학제성이 최근 몇 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학제성은 매우 다면적인 주제로 학문간의 정보 교환을 표현하는 인용 행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학의 대표 학술지인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선정하여 2001년 창간호부터 2011년까지 게재된 총 195편의 논문과 여기에 피인용된 총 4,769개의 참고문헌에 실린 자료 중 대표 유형인 2,997개의 참고문헌을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DDC를 부여하여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을 분석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인용문헌의 수는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지 인용이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록관리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된 학문 분야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록관리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인용된 주제 분야는 참고문헌의 유형과 상관없이 문헌정보학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분야는 학술지의 경우는 서지학이었고, 나머지 유형은 기록관리학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된 분야도 학술지와 단행본의 경우, 경영학으로 나타났지만, 규격/표준/지침은 행정학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1년 동안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이 진행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브롤리엔 인덱스로 학제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학술지가 발행된 2001년부터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 수준의 학제성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셋째, 기록관리학의 학제성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2001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

문의 시작 단계에서 학제성이 높은 학문은 처음부터 그 특성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제성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 기술적인 적용의 증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기록관리학에서도 학문적 영역의 확장을 더욱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학제성은 커질 것이다. 학제성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 주제이며 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후속 연구로는 첫째, 기록학 연구라는 다른 대표 학회지의 인용 분석을 바탕으로 학제성을 측정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학제성을 측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제성 지수를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학제성 정도와 특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속에 반영된 학제성을 설정 교과목과 개설 교과목을 바탕으로 짚어보는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이론과 실무가 함께 발전되어야 하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교육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9(4): 217-239.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김대현, 강이화. 2010. 고등교육에서 학제성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교육사상연구』, 24(3): 31-46.

김상구, 이원일.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연

- 구경향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6(4): 415-420.
- 김희정. 2005.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분야의 지적 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민기은, 정영미. 2006.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성에 관한 계량정보학적 연구.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1-126.
- 이재윤. 2008. 연구자의 투고학술지 현황에 근거한 국내 학문 분야 네트워크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5(4): 327-345.
- 이재윤, 정주희. 2006. 연구자 소속과 표제어 분석을 통한 국내 인지과학 분야의 학제적 구조 파악.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7-134.
-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 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67-391.
- 정은경. 2011. 디지털도서관 분야의 학제적 공동연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2): 37-51.
- 정은경, 정연경, 이정연. 2009. 연구자 소속과 연구영역 매핑에 의한 학제성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47-161.
- 정호연, 정영미. 2007. 학술지 인용과 웹 링크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의 학제성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3): 179-200.
- Braun, T. and Schubert A. 2003. A quantitative view on the coming of age of interdisciplinarity in sciences 1980-1999. *Scientometrics*, 58(1): 183-189.
- Chang, Y. W. and Huang, M. H. 2012. A study of the evolution of interdisciplinarit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sing three bibliometric method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1): 22-33.
- Chen, C. R. and Huang, Y. 2007. Author affiliation index, finance journal ranking, and the pattern of authorship.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3: 1008-1026.
- Chua, A. Y. K. & Yang, C. C. 2008. The shift towards multi-disciplinarity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3): 2156-2170.
- Couture, Carol, Ducharme, Daniel. 2005.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41-67.
- Cronin, B. and Meho, L. I. 2008a. The shifting

- balance of intellectual trade in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4): 551-564.
- Cronin, B. and Meho, L. I. 2008b. Applying the author affiliation index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1): 1861-1865.
- Gingras, Y. and Lariviere, V. 2010. The historical evolution of interdisciplinarity: 1900-2008. *Book of abstracts of the El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Leiden, Netherlands.
- Gilliland-Swetland, Anne J. 1992. Archive and the Computer: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17(2): 95-112.
- Huang, M. H. and Chang, Y. W. 2011. A study of interdisciplinarity in information science: using direct citation and co-authorship analysi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7(4): 369-378.
- Iacovino, Livia. 2004. Multi-metho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the case of recordkeeping, ethics and law. *Archival Science*, 4: 267-286.
- Kim, Hee Jung, Lee, Jae Yun. 2008. Exploring the emerging intellectual structure of Archival Studies Using Text-mining: 2001-2004.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4(3): 356-369.
- Lariviere, V. and Gingras, Y. 201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disciplinarity and scientific impac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1): 126-131.
- Levitt, Jonathan M., Thelwall, Mike, and Oppenheim, Charles. 2011. Variations between subjects in the extent to which the Social Sciences have become mor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2): 1118-1129.
- Leydesdorff, L. and Schank, T. 2008. Dynamic animations of journal maps: Indicators of structural changes and interdisciplinary develop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1): 1810-1818.
- Obermeier Uwe and Brauckmann, Hannes. 2010. Interdisciplinary patterns of a University: Investigating collaboration using co-publication network analysis. *Collinet Journal of Scientometrics and information management*, 4(1): 29-40.
- Ortega, L., Antell, K. 2006. Tracking cross-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use by author affiliation: Demonstration of a method.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5): 446-462.
- Pierce, S. J. 1999. Boundary crossing in research literatures as a means of inter-

- disciplinary information transfe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3): 271-279.
- Porter, A. L. and Rafols, I. 2009. Is science becoming more interdisciplinary? Measuring and mapping six research fields over time. *Scientometrics*, 81(3): 719-745. (추가)
- Porter, A. L., Chohen, A. S., Roessner, D., and Perreault, M. 2007. Measuring researcher interdisciplinarity. *Scientometrics*, 72(1): 117-147.
- Prebor, Gila. 2010. Analysis of the interdisciplinary na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2(4): 256-267.
- Qin, J., Lancaster, F. W. and Allen, B. 1997. Types and levels of collaboration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sci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8(10): 893-916.
- Schunn, C. D., Crowley, K. and Okada, T. 1998. The growth of multidisciplinary in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Cognitive Science*, 22(1): 107-130.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12.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cited 2012.4.5]. <<http://www.archivists.org/gpas/curriculum>>.
- Szostak, R. 2008. Classification, interdisciplinarity, and the study of science. *Journal of Documentation*, 64(3): 319-332.
- Tijssen, R. J. W. 1992.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interdisciplinary structures in science and technology: co-classification analysis. *Research Policy*, 21: 27-44.
- Upward, F.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 270-277.
- White, Kelvin F. and Gilliland, Anne J. 2010. Promoting reflexivity and inclusivity in archival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Library Quarterly*, 80(3): 231-248.